▌이베로아메리카 제10권 2호 [2008.12] : 1~25

볼리비아의 언어정책과 원주민 교육

김 우 성*
Kim, Uh-Sung

<Abstract>

La Política Lingüística y la Educación Indígena en Bolivia

Desde la colonia y la república, la política lingüística de Bolivia ha tenido como objetivo eliminar las lenguas indígenas por medio de la educación en español, idioma de los conquistadores. Como consecuencia, los pueblos indígenas, aunque constituyen la mayoría de la población boliviana, han sido marginados y discriminados.

En este contexto, el único derecho lingüístico que se reconoció a la población indígena fue el de usar el idioma hablado por la minoría en el poder: el español. Junto a la castellanización se empezó el proceso de desincentivación del uso de las lenguas indígenas, pues el Estado apostaba por su homogeneización lingüístico-cultural.

El monolingüismo español ha desterrado a las lenguas originarias a situaciones de uso doméstico, dando como resultado que los jóvenes empezaron a avergonzarse de su propia lengua, y sólo usan la lengua dominante para comunicarse con los extraños, debido a las relaciones asimétricas con los miembros de la sociedad dominante.

En respuesta de las demandas crecientes de diversos sectores de la sociedad desde la democratización del país en 1982, hubo un

* 부산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E-mail: uskim@pufs.ac.kr

cambio profundo en cuanto al reconocimientode las lenguas y culturas de los pueblos indígenas y sus derechos. Con la Ley de Reforma Educativa en 1994 se adoptó la educación intercultural bilingüe como política pública y se sancionaron dos modalidades de lengua: la obligación por parte de los indígenas de aprender el español, y la posibilidad de los hispanohablantes de aprender alguna lengua indígena.

Con el primer Presidente indígena en el poder, Bolivia está pasando por el proceso de refundar la nación utilizando una nueva política lingüística con base en el plurilingüismo y la revalorización de las lenguas indígenas. Es un plan que por primer vez en la historia de Bolivia podrá crear un Estado donde todos los grupos étnicos - criollos, mestizos y pueblos originarios - tengan el mismo valor en la sociedad.

[Key Words: Bolivia/ Política Lingüística/ Derecho Lingüístico/ Educación Indígena/ Educación Intercultural Bilingüe]

[: / / / /]

Ⅰ. 들어가면서

현재 대부분의 국가의 언어상황을 보면 한 국가 내에서 단일 언어가 사용되는 경우는 우리나라, 일본 등과 같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고 보통은 한 국가 내에서 두 개 내지 그 이상의 언어가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틴아메리카에는 스페인의 정복 이전부터 다양한 언어와 문화

가 존재하는 다문화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다. 스페인의 라틴아메리카 정복으로 이러한 다문화적인 상황은 보다 복잡한 양상을 띄게된다. 다시 말하면, 원주민 문화와 지배자의 문화인 유럽문화 사이에 갈등적 관계가 형성되었다. 이때부터 권력자들의 언어인 스페인어는 공적 영역의 공용어가 되었고, 피지배 언어인 원주민어는 정치·사회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놓이게 되어 사적 영역의 언어로 전락하면서 사용자의 숫자가 많지 않은 언어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기 시작했다.

이러한 다언어적인 상황은 식민지 기간 내내 지속되었고, 독립 후 근대적인 국민국가를 건설하려 했던 라틴아메리카의 신생 독립 국가들은 지배층의 언어 및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를 형성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원주민 언어 및 문화는 국가통합에 방해되는 요소로 간주되어 제거되어야 할 대상이었다. 따라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각국에 존재했던 언어·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수적으로 다수를 점하는 원주민들을 스페인어와 유럽문화에 동화시키려는 동질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원주민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근대 국민국가의 시민으로 만들고자 했던 동질화정책은 원주민들을 국민국가 건설과정에서 철저하게 배제시켰으며 그 결과 이들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과 멸시의 대상으로 전락하여, 국가 내에서도 이등 국민의 대접을 받으면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의 정치적 민주화, 경제적 개방화 그리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원주민운동의 성과 덕분에 1980년대를 기점으로 각국의 원주민 정책은 점차 변화하기 시작한다. 지금까지 견지해온 단일민족, 단일문화, 단일언어라는 근대 국민국가의 가치를 지양하고, 각 국가 내에 존재하는 언어·문화적 다양성을 국가통합을 해치는 갈등 요소로 보지 않고 사회 전체가 보존해야 할 귀중한 자산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1)]

이러한 다문화주의의 인정은 원주민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멕시코, 과테말라, 페루, 볼리비아, 에콰도르에서 뿐만 아니라 원주민의 존재가 미미한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 등에서도 나타난다. 이들 국가에서는 그동안 존재 자체를 무시해왔던 원주민을 인정하고 국가의 성격도 단일민족, 단일문화 국가에서 다민족, 다문화 국가로 변경하였으며, 언어·문화적 권리를 포함한 원주민의 제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헌법의 개정과 함께 이를 시행하기 위한 하위 법률을 제정하였거나 제정하고 있는 중이다.

비록 각 국가가 원주민의 제반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한다고 해도 이는 어디까지나 기존의 국민국가의 틀을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원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원주민의 권리가 가장 잘 보장되어 온 분야는 정치적인 권리보다는 문화권에 관련된 것으로 특히, 원주민교육 분야가 여기에 해당된다. 종래의 일방적인 스페인어화 정책으로 인한 원주민 학생들의 낮은 학업성취율과 높은 중도탈락률을 반전시키는 대안으로 학교에서 원주민어 사용이 인정되면서 원주민 교육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생기고 있다. 즉, 1980년대까지 원주민 교육의 최대 목표가 원주민 학생들에게 스페인어와 유럽문화를 가르치는 스페인어화(catellanización)[1]에 있었다면, 문화적 다원주의가 인정되면서 원주민 교육은 원주민어를 먼저 배우고 스페인어를 제2언어로 배우면서, 자신의 문화를 토대로 주류사회의 문화를 이해하여, 다문화, 다언어 사회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상호문화적 이중언어 교육(educación intercultural bilingüe)으로 그 목표가 바뀌었다(김우성 2006).

---

1) 이러한 경향은 최소한 정부의 공식적인 담론에서는 그렇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반사회에서 원주민을 바라보는 태도는 아직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의 대상인 볼리비아의 경우에는 2005년 역사상 최초로 원주민 출신인 에보 모랄레스(Evo Morales)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기존의 주류 사회를 구성하는 소수의 끄리오요-메스티소(criollo-mestizo)의 유럽 중심적인 정책을 지양하고,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원주민들이 기존의 지배계층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자 제헌헌법과 새로운 하위법률들을 제정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문화적 다원주의를 인정하면서 원주민의 언어권을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했지만, 지배계층이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어 실제로 법률과 현실 사이에는 괴리가 매우 큰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원주민 출신이 권력의 핵심부를 차지한 볼리비아의 경우에는 다른 여타 국가보다 원주민 정책이 진보적이고 실질적이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원주민이 볼리비아 정치무대의 전면에 등장한 이후 원주민어와 관련된 언어정책에서는 어떠한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 우선, 볼리비아의 언어 상황을 간략하게 살펴본 다음, 원주민이 볼리비아 정치의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 볼리비아에서 시행된 원주민 교육에서의 언어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이 중에서도 특히, 1990년대 이후 원주민어와 관련해서 제정된 제반 법률과 원주민 출신 대통령 집권 이후 언어정책의 현황과 추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볼리비아의 언어상황

볼리비아는 라틴아메리카에서 과테말라와 함께 라틴아메리카에서 원주민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대략 전체 인구의 70%를 차지한다. 그러

나 정확하게 인구의 몇 퍼센트가 원주민인 지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단지 인구조사에서 나온 정보를 토대로 몇 퍼센트의 인구가 스페인어가 아닌 원주민어를 단일언어 혹은 스페인어와 함께 이중언어로 사용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을 뿐이다. 2001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10명의 볼리비아인 중 5명 이상이 현재 볼리비아에 존재하는 36개의 원주민언어 중 하나 내지 둘 이상을 단독으로 혹은 스페인어와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INE 2002).또한 전 국민의 약 12%가 하나의 원주민어만을 사용하고, 약 48%의 볼리비아인들은 원주민어와 다른 원주민어 혹은 원주민어와 스페인어를 병행해서 사용하는 이중언어 구사자이다.

2001년 인구조사의 결과를 보면 자신을 원주민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15세 이상 인구의 62%를 차지하고, 이 중 케추아족이 약 30%이고, 아이마라족이 25% 그리고 약 6%가 볼리비아에 거주하는 기타 부족 중의 하나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볼리비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는 스페인어로, 2001년도 인구조사를 보면 스페인어만을 구사하는 인구는 전 국민의 약 40%를 차지한다. 또한 스페인어와 원주민어를 병행하여 구사하는 사람은 약 41%이다. 스페인어만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볼리비아의 북부, 동부, 남동부 지역에 모여 있다(베니(Veni),빤도(Pando), 산타끄루스(SantaCruz),따리하(Tarija)).도시에서의 이중언어 사용에 관한 통계를 보면, 꼬차밤바(Cochabamba)에서는 54%, 라빠스(La Paz)에서는 48% 그리고 산타끄루스(SantaCruz)에서는 20%의 인구가 이중언어 구사자로 나타났다. 라빠스의 경우에는 스페인어 이외에 아이마라어 사용자가 압도적이고, 수끄레(Sucre)와 뽀또시(Potosi)와 같은 도시에는 케추아어의 사용자의 비율이 높다. 오루로(Oruro)와 꼬차밤바 지역은 케추아어 사용자가 많으나 아이마라어 사용자도 상당수 존재한다(INE 2002).

이와 같이 대도시에서 원주민어가 사용되는 것은 상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원주민의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케추아어와 아이마라어 사용자들은 자신의 언어를 잊지 않고 스페인어를 배우면서 이중 언어 사용자로 변한다. 원주민의 인구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도시에는 원주민 수의 증가와 함께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유지하기 위한 좋은 환경이 조성된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도시로 이주해온 원주민들이 원주민어를 사용하지 않거나, 혹은 원주민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한 세대를 지나면 이를 상실할 위험이 매우 높은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도시에서의 케추아어나 아이마라어의 사용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원주민어의 도시에서의 생존 전망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López 2006).

1970년과 1992년의 인구조사와 2002년도 인구조사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회 언어적 경향이 나타난다(INE 1970; 1992; 2002).

1)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중 언어 교육의 결과와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가 급증함에 따라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사람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대도시에서는 스페인어만을 구사하는 사람의 수가 늘고 있긴 하나 전국적으로 보면 압도적인 추세는 아니다.

2) 농촌지역에서는 지역에 따라 두 개의 상반된 현상이 나타난다. 어떤 지역에서는 케추아어와 아이마라어의 사용자수가 감소하는 추세이나 라파스주나 산타끄루스 지방의 신흥 거주지역에서는 이 두 언어의 사용자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3) 현재의 전반적인 경향은 이중언어 사용자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렇게 이중언어 사용자가 늘어나는 것은 케추아어나 아이라아어 사용자가 도시에서 생활하거나 혹은 행정관청에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스페인어를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페인어만을 구사하는 사람이 케추아어나 아미마라어와 같은 원주민어를 배우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다.

Ⅲ. 볼리비아의 언어정책과 원주민 교육

1. 식민지 시대의 언어정책

식민지 시대에는 행정관청의 공식적인 언어가 스페인어였지만 케추아어나 아이마라어를 하는 통역관을 두게 하여 원주민들이 일상생활이나 사법기관에서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또한 복음전파를 하는 데 있어서도, 원주민들이 스페인어를 배우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므로 원주민어를 사용하여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성직자들이 원주민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그 결과 성경뿐만 아니라 기타 종교 관련 문서들이 케추아어와 아이마라어로 번역되었으며 원주민어 사전이나 학습교재가 편찬되었다. 그러나 선교사들이 비록 원주민어를 사용하여 가톨릭의 교리를 가르쳤지만 원주민들이 정복자들이 가져온 신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는 데 많은 문제가 있어서 자신들의 우주관에 기반 한 케추아-아미마라 원주민의 사고방식을 바꾸기에는 무리가 따랐다. 그리고 원주민어의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산프란시스코 하비에르대학(Universidad San Francisco Xavier)에 아이마라어 강좌가 개설되기도 했다(Quisbert and Choque 2002).

가톨릭 교리를 전파하기 위한 원주민어 사용과 병행하여 원주민 귀족에게 스페인어 교육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리마(Lima)나 꾸스코(Cusco)에 특수학교들이 설립되었다. 이렇게 해서 스페인어를 습득한 원주민 귀족들은 식민지 시대에 이루어진 문화동화정책의 첨병임과 동시에 식민지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식민 통치지와 원주민을 연결하는 효율적인 매개자역할을 수행했다(Cerrón-Palomino 1989).

그러나 18세기 중반부터 까를로스 3세에 의해 실시된 스페인어 단일화 정책은 원주민의 언어가 공적 영역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전기가 되었다. 이때부터 볼리비아 사회에서는 다른 여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서처럼 스페인어가 교육을 비롯한 행정, 사법 등 모든 영역에서 공용어가 되고 원주민어는 가정이나 원주민 공동체의 사적인 영역에서만 사용되는 소수파 언어로 전락하게 되었다.

2. 독립 이후의 언어정책

독립 직후인 19세기의 볼리비아에서는 식민지 시대처럼 케추아어와 아이마라어가 일상적으로 통용되었고, 원주민을 위한 교육기관이 설립되지 않아 스페인어 교육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지 않은 까닭에, 농촌지역에서는 원주민어 사용이 스페인어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그들의 문화 역시 보존되었다.

그러나 다른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독립 이후 볼리비아에서 교육의 목표는 원주민들을 원주민이 아닌 볼리비아인을 만들어 국가의 주류 문화에 편입시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원주민의 언어·문화적 특성을 무시하고 유럽식의 스페인어화 정책을 통해 이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바꾸려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육의 핵심은 원주민들에게 스페인어를 가르치는 것이었다. 당시 위정자들에

게 원주민들이 스페인어를 습득하는 것은 국민국가의 시민이 되는 보증서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세기 전반에 볼리비아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원주민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들의 사회·문화적 특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스페인어를 사용한 교육의 실시가 낮은 학업 성취도, 높은 중도탈락률로 이어진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다. 또한 학교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열등감을 심어주는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볼리비아 교육에서 최초로 원주민어의 사용이 언급된 것은 1952년 볼리비아 혁명 후에 제정된 볼리비아 교육법(Código de Educación Boliviana)에서이다. 이 법에서는 스페인어 문자해득을 통한 국가적 언어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일부 지역에서 원주민어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규정한다(교육법 115조). 이는 스페인어의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원주민어를 도구로 사용하려는 과도기적 이중언어 교육을 말하는 것으로 국가가 국민통합을 위해 스페인어 해득을 통한 언어적 다양성을 극복하려는 목적으로 원주민어의 사용을 인정한 것이다.

쁠라사와 알보(Plaza and Albó 1989)에 따르면 1952년 볼리비아혁명 이후 원주민 공동체에서 여러 형태의 이중언어 교육이 실시되었는데, 이는 주로 가톨릭과 여름언어연구소(Summer Institute of Linguistics: SIT)[2]가 실시한 것으로 대부분이 스페인어의 효과적인 습득을 최종 목표로 하는 과도기적 성격을 지닌 것들이었다.

지금까지 본 것처럼 1952년 볼리비아 혁명 이후 1980년대 이전까지의 언어정책의 특징은 국가 내에 존재하는 언어·문화적 다양성을 '문제'로

2) 여름언어연구소(SIT)는 미국에 본부를 둔 기독교 선교 단체로 전 세계의 모든 원주민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주된 임무로 삼고 있으며, 특히 문자가 없는 언어는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한다. 성경 번역 이외에도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을 문명화하기 위해 이중언어 교육을 실시한다.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문화적 동질화를 추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원주민어는 교육은 물론 전반적인 소통의 차원에서도 방해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국가는 가능한 한 빨리 원주민들을 주류문화에 편입시키기 위해 과도기적 이중언어 교육을 통해 원주민어를 사용하도록 허용했다. 다시 말하면, 원주민어는 원주민들이 보다 신속하게 스페인어를 배울 수 있도록 잠정적인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다.

1980년 이후 볼리비아는 오랜 동안의 민간 및 군부독재 시대를 마감하고 민주화로 복귀했다. 민주화와 함께 국가의 정체성과 국가의 다문화적인 상황 인식을 통해 원주민의 언어와 문화를 '문제'로 인식하는 단일문화주의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이를 볼리비아 문화를 풍요롭게 하는 요소로 생각하는 문화적 다양성의 가치에 대한 대안적인 견해가 생겨났다. 이를 잘 나타내는 것이 당시 가톨릭의 주교교육위원회(Comisión Episcopal de Educación)가 실시한 이중언어 교육이다. 이 형태의 교육에서는 원주민어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해 초등학교 5년 동안 원주민어가 사용되었다. 또한 1983년에는 국가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문자해득 프로그램인 전국 문자해득 및 민중교육 프로그램(Servicio Nacional de Alfabetización y Educación Popular: SENALEP)을 실시했는데, 여기서는 먼저 원주민어를 사용하여 교육을 시작한 후 스페인어로 된 과들을 제 2언어로 편입시켰다. 주교교육위원회의 교육 프로그램이 원주민어의 유지·발전을 위한 이중언어 교육의 선봉에 선 것이었다면 SENALEP은 도시 및 농촌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에게 교육에서의 원주민어 사용의 이점을 인식시켜준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López 1994). 이 시기부터 볼리비아에서는 상호문화성(interculturalidad), 이중언어 교육 그리고 원주민 문제가 교육이나 정치 담론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기 시작한다.

1988년 볼리비아 교육부는 UNICEF와 공동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될 상

호문화적 이중언어 교육을 위해 시범적으로 사용될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일정 부분 페루의 푸노(Puno)에서 시행된 상호문화적 이중언어 교육 프로젝트에 기반을 두었다. 페루의 푸노 프로젝트는 독일의 원조기관인 GTZ가 1979년부터 1990년까지 지원한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연구, 교육과정 및 학습자료 개발, 교사 양성, 평가, 그리고 페루-볼리비아 국경지역의 케추아 및 아미라마 공동체에서의 문화상호적 이중언어 교육 실시를 목표로 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볼리비아는 많은 언어학자와 인류학자를 양성할 수 있었고, 상호문화적 이중언어 교육 방법론과 교재를 제공받았다. 이렇게 해서 고안된 볼리비아의 상호문화적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5학년까지의 모국어, 수학, 생활과학, 스페인어 그리고 교사 지침서 등을 케추아어와 아이마라어로 편찬하였으며 일부 몇 과목은 과라니어로도 교과서를 편찬했다(López,1994).이 프로젝트는 볼리비아 정부가 최초로 실시한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원주민어만을 하거나 스페인어에 대한 초보적인 능력을 가진 원주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초등학교 5년 동안 원주민어와 스페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원주민어가 초등학교 5년 동안 계속해서 교육의 주된 언어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하겠다. 또한 총 150개 농촌지역의 케추아, 아이마라, 과라니 학교에서 시행되었으며, 이는 교육에서 언어의 역할에 대해 단일문화적인 시각에서 다문화적인 시각으로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3. 1990년대 이후의 언어정책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볼리비아의 원주민 단체들은 교육에서의 언어 및 문화권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보다 강하게 제기한다. 이러한 압력에

직면하여 정부는 1992년에 아직 실행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은 상호문화적 이중언어 교육을 대통령령 23036호를 통해 공식화하기에 이른다. 뒤이어 1994년에 제정된 교육개혁법(Ley 1565, Reforma Educativa)에서는 1992년 공식화된 상호문화적 이중언어 교육방식을 제도화 하고 상호문화성(interculturalidad)을 전 교육제도의 중심축으로 설정한다. 이 법에는 원주민어의 사용을 이 언어의 유지를 위한 것으로 그리고 문화적 동화가 아닌 각 원주민 공동체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교육개혁법은 볼리비아의 사회·문화적 이질성을 반영한 결과 상호 문화적이고 이중 언어적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교육개혁법 9조에서는 이중언어 교육의 세부적인 사항을 말하고 있으며 공교육 및 대안교육에서의 언어 구성에 대해 명기하고 있다. 즉, 교육은 스페인어를 주로 하고 하나의 원주민어를 부가적으로 학습하는 단일언어적인 것일 수도 있고, 원주민어를 제 1언어(모어)로 하고 스페인어를 제 2언어로 하는 이중언어적인 것일 수도 있다(9조 2항).

또한 이 규정에 따르면 이중언어 교육은 국가의 모든 교육체계에 적용되며, 초등학교에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유아교육과 중등교육으로 그 범위를 확대시켜야 하고, 학생들이 원주민어를 사용해서 스페인어와는 다른 언어로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교과과정이 이중언어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중언어 교육을 원주민어의 유창성을 유지·발전시키는 것을 물론 스페인어 유창성의 보편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를 위해 교육개혁법에서는 볼리비아의 36개 원주민어 중에서 문자가 있는 케추아어, 아이마라어 그리고 과라니어의 체계적인 사용을 보장하고 있다.

원주민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이중언어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초기의 읽기와 쓰기 교육이 모어인 원주민어로 이루어지고 동시에 스페인어

구어교육이 제 2언어 교수전략을 통해 시작되어야 한다. 스페인어로 읽기와 쓰기는 일단 학생들이 자신의 모어로 이 능력을 습득한 후 시작되어야 하고, 일단 학생들이 자신의 모어 및 스페인어로 읽기와 쓰기능력을 습득하게 되면 두 개의 언어가 똑 같이 수업에서 사용된다.

라틴아메리카 최초로 시도되는 양방향(two-way) 이중언어 교육에 대해 교육 개혁법은 스페인어만을 사용하는 학생들의 교육과정에는 원주민어를 배우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만 명기하고 있을 뿐 이 학생들이 반드시 원주민어를 배워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하면, 가능성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상호문화적 이중언어 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우선, 교육개혁법에 스페인어 학습에 대한 세부적인 조항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주민어를 구사하는 아이들이 이런 형태의 교육을 통해서는 완전한 스페인어 구사능력을 배양하지 못할 지도 모른다는 원주민 학부모들의 염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그리고 상호문화적 이중언어 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및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사이의 원주민 학습자를 위한 연속성의 부재는 이 교육방식의 약점으로 지적된다[3].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리비아의 상호문화적 이중언어 교육은 교실에서의 원주민어 사용이 교육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가치를 갖는다는 다원주의적 관점에서, 교육에서의 언어의 역할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2000년에 볼리비아 정부는 대통령령 25894를 통해, 헌법 1조에서 규정한 다민족국가와 다문화적인 성격과 헌법 171조에 규정한 언어권 보장

3) 1994년에 제정된 교육개혁법에서는 초등학교에서의 원주민을 위한 이중언어 교육을 규정하고 있으나 중등학교에서의 원주민 학생을 위한 교육방식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을 포함한 원주민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규정, 1991년에 이루어진 국제노동기구 협약 169조의 비준, 그리고 교육에서 이중언어 교육을 명기한 1994년의 교육개혁법 9조에 의거하여 케추아어, 아이마라어, 과라니어를 비롯한 36개의 원주민어를 공용어로 인정하였다[4].

4. 에보 모랄레스정부의 언어정책

2006년 볼리비아 역사상 최초로 원주민 출신인 에보 모랄레스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언어정책이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우선, 2008년 10월에 의회를 통과해서 2009년 1월에 국민투표에 부쳐질 제헌헌법에서는 원주민어를 스페인어와 동등한 지위를 갖는 공용어로 인정한다(제헌헌법 5조 1항). 그리고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는 스페인어와 함께 하나의 원주민어를 공용어로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헌헌법 5조 2항). 이것은 식민시대 이후 지속된 스페인어만을 공용어로 인정하는 단일언어주의 정책에서 볼리비아 사회 내의 원주민어의 존재를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다언어주의 정책으로의 전환을 헌법을 통해 공식화한 것을 의미하며, 원주민들에게 자신의 문화와 언어에 대한 자긍심을 되돌려주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모랄레스 정부가 교육정책에서 핵심 축으로 삼는 것은 탈식민화 정책이다[5]. 교육에서의 탈식민화는 유럽 중심적인 지식만을 가르치는 것을

---

4) 케추아어, 아이마라어, 과라니어를 제외한 공용어로 인정된 나머지 33개 언어를 보면 다음과 같다.
아라오나어, 아요레오어, 바우레어, 베시로어, 까니차나어, 까비네뇨어, 까유바바어, 차꼬보어, 치만어, 에세에하어, 과라수웨어(빠우세르나어), 과라유어, 이또나마어, 레꼬어, 마치네리어, 모헤뇨어, 뜨리니따리오어, 모헤뇨-이그나시아노어, 모레어, 모세뗀어, 모비마어, 빠까와라어, 레이예사노어, 시리노노어, 따까나어, 띠삐에떼어, 또로모나어, 우루-치빠야어, 웨엔아엑어, 야미나와어, 유끼어, 유라까레어.

5) 볼리비아에서 식민성은 소수의 지배계급의 다수의 원주민 및 하층계급에 대한 우

지양하고 원주민의 전통적인 지식이나 기술도 가르치게 함으로써 "외부적인 것(유럽적인 것)은 좋은 것이고, 우리 것(토착적인 것)은 나쁘다"라는 식민주의 사고방식을 불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언어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정책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교육에서부터 원주민어를 사용하게 해서 점차적으로 공적 영역으로 확대시켜, 모든 볼리비아인들이 스페인어와 원주민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이중언어 사용자가 되게 만드는 것이다. 특히, 원주민어가 원주민 공동체뿐만 아니라 공동체 밖에서도 사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주민과 비원주민 간의 진정한 상호 문화간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2006년에 입안된 신교육법(Nueva Ley de Educación Boliviana[6])에서는 학교교육에서 스페인어, 원주민어 그리고 외국어를 배우게 하여 3개어 구사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개어 교육을 위해서는 언어를 잘 분류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어떤 언어들은 교육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될 것이고, 다른 언어들은 학습 대상 언어가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원주민어가 주로 사용되는 지역의 학생들에게는 그 지역의 원주민어가 교육언어가 되고, 반면에 스페인어가 주로 사용되는 지역의 학생들에게는 원주민어가 학습언어가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스페인어가 주로 사용되는 지역의 학생들에게는 스페인어가 교육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되고, 원주민어가 주로 사용되는 지역의 학생들에게는 스페인어가 배워야 할 학습언어가 된다. 학습언어의 경우에는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배워야 한다. 그리고 원주민어는 공립학교나 사립학교를 불문하고 모든 학생들이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배워야 하며, 외국어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월감에서 비롯된 편협성과 편견으로 나타난다. 이로 인해 두 개의 서로 다른 볼리비아가 존재한다. 다시 말하면, 유럽계 소수의 지배 사회와 원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다수의 피지배 사회가 각기 다른 문화와 세계관을 가지고 공존한다.

6) 현재 신교육법은 볼리비아의 정치상황으로 인해 2006년부터 지금까지 국회에 계류중이다.

점진적으로 실시된다(신교육법 14조).

지금까지 모랄레스 정부는 원주민어의 사용이 모든 볼리비아인의 일상에서 정착되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 왔다. 우선, 대학에서 서류, 과제물, 논문 등이 원주민어로 제출되도록 하는 방안이 발표되었다. 실제로 2006년에 볼리비아 역사상 최초로 산빠블로가톨릭대학(Universidad Católicade San Pablo)의 한 학생이 자신의 학사학위 논문을 원주민어인 아이마라어로 발표했다. 티티카카 호숫가에서 열린 이 심사에서 심사자와 피심사자 사이의 질의와 답변도 원주민어로 이루어졌다(Reel 2007).

원주민어를 알아야 하는 것은 교육에서뿐만 아니라 공적영역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재 모랄레스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공직자, 즉 대통령 후보나, 국회의원, 주지사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 원주민어의 구사여부이다. 또한 공무원이나 교사가 되기 위해서도 원주민어구사능력을 요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La Razón 2006/06/25).

이같이 공직자에게 스페인어 외에 원주민어 구사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현 집권세력이 이중언어 사용을 볼리비아의 계급사회와 인종간의 벽을 허무는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하여, 공직자의 인식 전환을 통해 원주민어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자 하기 때문이다. 모랄레스 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을 지낸 펠릭스 파치(FélixPatzi)에 의하면, 그동안 볼리비아를 지배해 온 소수의 유럽계 지배층에게 원주민어는 미개하고 야만적인 언어로 간주되어 왔다. 이는 식민주의적 사고방식에 기인한 것으로 이런 상황을 변화시킬, 다시 말하면 언어적 탈식민화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이중언어나 삼중언어 사용을 제도화 하는 것이다(La Razón 2006/06/25).

그러나 이러한 언어정책은 교육기관에서는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으나, 이 정책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은 아직도 초보 수준을 벗어나

지 못한다. 예를 들어, 주정부나 시청에서 거리표지판이나 공고문이 아직도 모두 스페인어로 작성되고 있다. 또한 원주민어의 사용을 확대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학교의 선생님들의 사고방식의 문제이다. 원주민이 많은 지역에서 이중언어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교사들이 원주민어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학생들에게 원주민어를 가르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활자화된 원주민어의 지위를 격상하기 위해 모랄레스 정부는 2006년에 스페인어를 비롯한 아이마라어, 케추아어등 8개의 원주민어로 교과서를 발행했으며, 2007년에는 16개 언어로 된 교과서를 출간했다. 이러한 정책의 목표는 교과서에서도 원주민어를 재평가하려는 것으로, 가정에서는 학생들이 원주민어를 사용할 지라도 학교에 오면 스페인어화 되는 경향이 강한 현실을 고려할 때 원주민어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꾸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정부의 원주민어 우대정책에 힘입어 볼리비아 사회에서 원주민어가 조금씩 중요성을 얻어가는 추세이다. 한 예로서, 2006년 8월에 수끄레(Sucre)시에서 케추아어로 된 윈도우 시스템이 출시되었다. 이 도시에서 열린 행사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Microsoft)는 시당국에게 케추아어 자판이 들어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전달했다. 이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추진하는 디지털 화합정책의 일환으로 국민의 30%에 해당하는 케추아어 사용자에게 정보화의 혜택을 주려는 시도이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따르면 윈도우나 오피스 프로그램의 케추아어 버전은 이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모랄레스 대통령도 자신의 모국어이고, 볼리비아에서 150만 명이 사용하는 아이마라어로 윈도우 프로그램이 번역될 수 있는가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마이크로소프트사 역

시 볼리비아에서 아이마라어로 작업을 할 실무자 그룹이 결성되면 아이마라어로 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기로 했다. 또한 검색엔진 구글도 케추아어로 된 검색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Reel 2007).

볼리비아 사회에서 원주민어가 얻어 가고 있는 중요성을 나타내는 또 다른 예로서 스페인어권의 최고의 고전인 "돈끼호테"가 아이마라어로 번역되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이 번역본은 2007년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열린 세계도서전시회에서 소개되었으며, 아이마라어로 번역된 돈끼호테를 이용하여 원주민 아동들에게 원주민어를 가르칠 예정이다. 그리고 남미에서 200만의 사용자를 가진 케추아어로도 번역을 할 계획이다.

에보 모랄레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아이마라어와 케추아어와 같은 원주민 언어를 보다 높은 지위로 격상시키려는 시도는 매우 야심찬 계획이다. 그러나 이는 이해 당사자들의 갈등과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매우 폭발성이 강한 문제이기도 하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시도는 스페인어를 원주민어로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원주민이라고 생각하는 나라에서 이들의 언어인 아이마라어, 케추아어, 과라니어 등의 사용을 장려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Reel2007).이는 전통적으로 원주민이 많은 농촌 지역뿐만 아니라, 이주 원주민이 많은 도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정책은 언어에 따른 차별이나 특권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언어를 동등하게 대우하려는 것을 목표로 하는 탈식민주의 정책과 관련이 있다.

원주민어의 지위 격상과 함께 지금까지 교육을 지배해온 서구의 사상만을 유일하고 보편적인 것으로 인정했던 정책을 탈피하여, 원주민 문화의 사상, 기술, 지식 등에도 중요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교육에서 가톨릭을 원주민의 전통적인 종교에 초

점을 두는 종교사로 대체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에보 모랄레스는 처음에는 이 제안을 지지했으나 가톨릭 및 기득권층의 반발에 직면하여 지지를 철회했다. 동시에 원주민어 교육에 대해서도 비원주민 학생들에게는 필수가 아니라고 한 발 물러섬으로써 종래의 입장을 완화했다(Reel 2007).

이렇듯 원주민 문화를 우대하는 정책은 원주민이 아닌 계층의 강한 저항에 직면해 있다. 특히, 모랄레스 정부는 2006년에 행정부의 모든 공무원들이 원주민어를 필수적으로 배워야 한다는 것을 발표한 후에, 모든 공립학교에서 원주민어를 필수로 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원주민 공동체와 거의 접촉이 없거나 원주민어가 실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이들 언어가 자신들의 삶의 방식에 위협으로 느껴지는 여러 지역에서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정부가 원주민어의 지위를 격상시키고자 하는 정책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언어는 단순히 문화적인 문제를 훨씬 뛰어 넘는 문제이다. 오늘날 언어 문제는 지식을 전달하고 권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볼리비아의 경우 모랄레스 정부가 추구하는 국민통합에 기반한 국가재건은 국가 차원에서 원주민어의 재출현을 의미하며, 원주민어의 지위 격상을 통한 원주민의 권한강화는 현 정부가 추구하는 다문화성을 공고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다. 현재의 언어정책은 원주민어를 공용어로 인정함으로써 모든 국민, 지금까지 소외되어 왔던 원주민까지를 포함한 국민국가를 형성하고, 이러한 국민국가 내에서 모든 국민이 동등한 가치를 갖게 함으로써 원주민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원주민들에게 자신의 언어로 읽고, 쓰게 하는 것은 그들을 국민국가의 시민으로 간주하는 한 방식이다. 다시 말하면, 19세기 독립 직후처럼 원주민을 국민국가 건설에서 배제하지 않고 포함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모랄레스 정부에게는 원주민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읽고, 쓰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국가재건 과정의 중요한 계획이자 경제, 사회 부문의 야심찬 계획이기도 하다(Cancino2007).

그러나 현재의 정치상황은 원주민어를 공용어로 인정하는 데 유리하게 전개되지 않고 있다. 원주민어의 공용어화는 원주민 공동체를 탈식민화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비원주민들을 포용하고 이들의 가치를 인정하는 문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에보 모랄레스가 언어정책에 있어서 신중한 접근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다시 말하면, 이 정부가 건설하려고 하는 새로운 사회에서는 비원주민들이 강제로 원주민의 문화와 언어를 배워야만 되고, 이를 모르면 볼리비아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에보 모랄레스가 국민국가의 일원으로 메스티소나 백인들을 인정하지 않고 원주민만을 우대하는 정책을 시행한다면 국민통합에 기반 한 국가를 재건하려는 그의 시도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Ⅳ. 나가면서

볼리비아는 원주민이 대략 전체 인구의 70%를 차지하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원주민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이다. 그러나 원주민의 존재를 인정하기 시작한 1980년대 이전까지는 이들의 문화적 권리는 무시되었으며, 볼리비아를 통치해온 소수의 유럽계 지배층의 언어와 문화에 동화되지 않으면 국가의 모든 영역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었다. 그러나 원주민이 정치적 전면에 등장하는 1980년대 이후 볼리비아에서는 그동안 존재가 무시되어 왔던 원주민의 언어와 문화를 인정하여 국가의 성격을 다민족, 다언어 사회로 규정하면서 원주민의 제반 권리들이 인정되기 시작했다.

특히, 이러한 권리들이 명시적으로 인정된 분야는 교육으로 1994년에 제정된 교육개혁법에서는 원주민어를 사용한 이중언어 교육이 제도화되기에 이른다. 또한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최초로 원주민이 아닌 스페인어만을 하는 학생들에게도 원주민어를 배우도록 함으로써 양방향 이중언어 교육을 실시했다.

2006년에는 볼리비아 역사상 최초로 원주민 대통령이 취임함으로써 언어, 문화를 포함한 원주민 정책에 획기적인 변화가 생겼다. 볼리비아 내의 최대의 원주민어인 케추아어와 아이마라어를 헌법상 공용어로 격상시킴으로써 지금까지 스페인어 중심의 단일언어주의 정책에서 원주민어를 스페인어와 동등한 공용어로 인정하는 다언어주의 정책으로 언어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했다. 또한 교육에서도 모든 교육체계에서 스페인어와 원주민어를 동시에 배우게 함으로써 모든 국민을 이중언어 사용자가 되도록 하여 언어 간의 편견을 없애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 즉 원주민과 비원주민 간의 상호교류가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세우고자 했다. 또한 원주민어의 사용을 학교로부터 일반 사회로 확대하기 위해 모든 공직자에게 원주민어 구사능력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정책을 입안했다.

그러나 이러한 모랄레스 정부의 야심찬 계획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국내의 정치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달려 있다. 최근에 일어난 산타크루스(SantaCruz)주를 비롯한 몇몇 주에서 중앙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한 반기를 든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현 정부가 추진하는 원주민 우대정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원주민어 교육은 원주민과 접촉이 없어, 원주민어가 거의 소용이 없는 계층에서 오히려 자신의 권리를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강한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지금과 같은 국제화시대에 영어가

아닌 원주민어를 강요하는 현 정부를 비원주민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이들이 같은 국민이면서 자신들과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원주민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와 깊은 관련이 있다. 아직도 볼리비아 사회 전반에는 원주민어가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미개한 언어라고 생각하는 식민주의적 사고방식이 널리 퍼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에보 모랄레스 정부가 다원주의적 언어정책을 통해 개혁하고자 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러한 사고방식이다.

참고문헌

김우성(2006),「멕시코의 다언어적 상황과 원주민 교육」, 이베로아메리카, Vol.8, No.2, pp.167-186.

Asamblea Constituyente de Bolivia(2007), Nueva Constitución Política de Bolivia, http://www. presidencia.gob.bo/asamblea/nueva_cpe_ aprobada_en_grande_en_detalle_y_en_revision.pdf

Cancino,Rita(2007), "La descolonización lingüística de Bolivia," Sociedad y Discurso,No.12, pp.22-37.

Cerrón-Palomino, R.(1989), "Language policy in Peru: a historical overview", Interantional Journal of the Sociology of Language 77, pp.12-33.

Comisión Nacional de la Nueva Ley de Educación Boliviana(2006), "Proyecto de Ley: Nueva Ley de Educación Boliviana, 'Avelino Siñani-Elizardo Pérez", http://www.minedu.gov.bo/minedu/nley/nuevaley14sept.pdf

INE(2002), Censo Nacional de Población y Vivienda, La Paz: Instituto

Nacionalde Estadística.

_____(1992),CensoNacionalde Poblacióny Vivienda,La Paz: Instituto Nacionalde Estadística.

_____(1980),CensoNacionalde Poblacióny Vivienda,La Paz: Instituto Nacionalde Estadística.

La Razón Digital(2006),"El bilingüismo será herramientaclave para la educación,"
http://www.la-razon.com/versiones/20060625_005583/nota_269_301897.htm

López H., Luis Enrique(2006),"Pueblosindígenas,lenguas,política y ecología del lenguaje",in L.E.López(ed.),Diversidady ecología del lenguajeen Bolivia, La Paz: PROEIBAndes/PluralEditores,pp. 17-46.

_____(1994),"La educación intercultural bilingüe en Bolivia:ámbito para el ejercicio de los derechoslingüísticosy culturasindígenas," Data, No.5, pp.97-124.

Plaza, P. y Albó,X.(1989),"Educación bilingüe y planificación lingüística en Bolivia,"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Sociology of Language,No.77, pp.69-93.

Quisbert Q., María Cristina y Roberto Choque C.(2002),"Derecho a las lenguas de los pueblos Aimara-Quechuaen Bolivia,"
http://www. bibliojuridica.com/libros/2/740/16.pdf

Reel, Monte(2007),"In Bolivia, Speaking Up for Native Languages. Government Push is Plagued by Controversy", Washington Post, 2007/01/30.

República de Bolivia, Ministerio de Educación y Bellas Artes(1956), Código de la Educación Boliviana, La Paz: Departamento de Publicaciones y Difución Cultural.

República de Bolivia(2000), Decreto Supremo N° 25894, http://www.congreso.go.bo/archivo/fondo.asp?fondo=0&sec=32&formato=A&a=2000&id=047.

República de Bolivia(1994), "Ley 1565, Reforma Educativa", in Ministerio de Educación, Cultura y Deportes, Compendio de Legislación de la Reforma Educativa y Leyes Conexas, La Paz: Centro de Información para el Desarrollo.

▌논문투고일자 2008년 11월 21일
▌심사완료일자 2008년 12월 8일
▌게재확정일자 2008년 12월 9일